

조선시대 죄인 심문기록 ‘추안급국안’ 90권 완간

전북 전주대학교가 조선 후기 정치·범죄사회사를 관찰할 수 있는 ‘추안급국안’ 90권을 출판했다. 이 대학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지난 2004년 처음 번역을 시작한 이후 10년 만에 ‘추안급국안’을 완역해 전 90권을 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추안급국안’은 선조 34년(1601)부터 고종 29년(1892)까지 약 300년 동안 변란과 역모, 천주교, 왕릉 방화 등에 관련된 중죄인들을 체포·심문한 기록이다.

심문 대상자는 양반 관료와 궁녀, 상인, 농민, 노비 등이 망라돼 있으며, 당시의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다.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이 자료들이 조선시대 양반과 백성들의 사회적 행동양식 및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복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책에서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 다른 역사서에서는 요약·압축된 사건이나 내용들을 심문과 진술 형태인 대화체로 가감 없이 자세히 풀어 쓰고 있다.

각 사건 이면에 존재하는 실체적 진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간관계, 특히 베일에 싸여 있던 궁중 내부의 갈등까지 조선 후기 역사적 사건의 속살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추안급국안’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록이며 국왕에 대한 역모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이에 준하는 각종의 변란이나 당쟁, 정변에 관한 기록이다.

변주승 한국고전학연구소장은 “번역 분량은 원문 글자수 약 672만6000여자로 영인본 30권 분량”이라면서 “번역문은 200자 원고지 15만 매의 규모로, 고전번역의 단일 사업으로는 최고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입력 : 2014-09-29 07:59:50 | 수정 : 2014-09-29 07:59:50

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